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산 공립 역사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직장 수강생입니다. 수험 생활을 하며 겪은 시행착오와 공부 방법이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격 수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응시 지역 및 성적

	응시지역	1차	2차
2024년(2025년 임용)	경남	67.33(컷 +0) - 교육학 18.33 - 전공 49	89.74 - 지도안 13.27 - 수업실연 40.20 - 면접 36.27
		총점 : 157.07(컷 -4.79)	
2025년(2026년 임용)	부산	72(컷 +3.67) - 교육학 16 - 전공 56	92.83 - 지도안 13.30 - 수업실연 43.93 - 면접 35.60
		총점 : 164.83(컷 +3)	

높은 점수로 붙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분들께 참고하시라고 간단하게 저의 상황을 작성하겠습니다. 저는 20, 21년에 임용을 준비했었으며 2년의 공백 후, 재작년인 24년에 다시 수험 재시작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 지식이 사라진 상태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과거 초수 때 종권쌤 강의를 수강한 이력이 있으며 그때의 좋은 기억으로 24년 9월부터 또 다시 종권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2. 수험 서적

저는 주로 공부한 서적만 적겠습니다. 발췌해서 참고하거나 수업을 따라가면서 추가로 공부한 서적도 있으나 오히려 혼란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역교론	역사교육의 이론,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역사교육 첫걸음
한국사	한국사통론,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1-7권, 한국사 교과서 2종(동아, 지학사)
서양사	서양사개론, 역사1 교과서 7종, 세계사 교과서 4종
동양사	동양사개론,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역사1 교과서 7종, 세계사 교과서 4종

발췌하거나 추가로 공부하더라도 위의 서적들, 그리고 기출과 관련된 내용들만 보았습니다. 후술하겠지만 저는 종권쌤의 3~4월 개론서반 그린노트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3. 전반적인 공부방식 : 3가지 루틴

저는 깊게 보느라 이해를 하지 못하면 진도를 잘 나가지 못하는, 즉 수험에 부적합한 방식으로 공부하는 수험생이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방식을 극복하고자 3가지의 루틴으로 공부시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첫째, 수업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루 공부할 수 있는 총 시간은 전업 수험을 기준으로 할 때, 24시간 중 최소 14시간 이상이 확보됩니다. 저는 8시간 이상 생각하고 집중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6시간 동안 수업을 따라가는 데 사용한다면, 나머지 8시간은 충분하게 생각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 할 수 있었습니다. 종권쌤은 학생들 반응을 보가면서 빠르지 않은 속도로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저는 수업시간에 한 것은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외우고 끝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역사임용에 필요한 분량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미루는 순간 도미노처럼 계속 밀리고, 결국은 충분한 공부가 이뤄지지 않은 채 시험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습 내용을 망각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재학습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개인공부시간입니다. 개인공부시간은 최소 8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때는 수업 진도에 맞춰 수업 범위의 개론서 내용을 찾아보며 이해할 때까지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 내에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수업 진도에 맞춰 넘어갔습니다. 스스로 깊게 이해하려는 공부과정이 없으면 문제에 적합한 답안을 쓰기 어렵지만, 11월까지라는 한정된 시간 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 차례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그린노트를 활용한 강제적인 개론서 회독입니다. 저는 성격상 빠르고 가볍게 책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설정했습니다. 22시까지 개인공부를 마치고 22시부터 3~4월 그린노트를 활용해서 강제적인 개론서 회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는 육성으로 최대한 빠르게 읽었습니다. 저는 2달 단위로 계획을 짰고, 2달동안 총 2회독이 되도록 계획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 그린노트를 활용한 강제적인 개론서 회독(한, 동, 서 중심)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8:00~24:00	21:00~22:59	22:00~23:59	21:00~23:59	21:00~23:59	22:00~24:00	22:00~24:00

일정(본 진도)	수	목	금	토
1주차	동양사1 한국사1(~p.14)	서양사1 한국사1(p.14~)	신뿌샘1(~p.31)	신뿌샘1(p.32~)
2주차	동양사2 한국사2(~p.9)	서양사2 한국사2(p.10~)	신뿌샘2(~p.27)	신뿌샘2(p.28~)
3주차	동양사3 한국사3(~p.24)	서양사3 한국사3(p.24~)	신뿌샘3(~p.27)	신뿌샘3(p.28~)
4주차	동양사4 한국사4(~p.11)	서양사4 한국사4(p.11~)	신뿌샘4(~p.28)	신뿌샘4(p.29~)
5주차	동양사5 한국사5(~p.18)	서양사5 한국사5(p.18~)	신뿌샘5(~p.32)	신뿌샘5(p.33~)
6주차	동양사6 한국사6(~p.14)	서양사6 한국사6(p.14~)	신뿌샘6(~p.19)	신뿌샘6(p.20~)
7주차	동양사7 한국사7(~p.10)	서양사7 한국사7(p.10~)	신뿌샘7(~p.17)	신뿌샘7(p.18~)
8주차	동양사8	서양사8	한국사8	신뿌샘8

일정(복습)	일1	일2	월	화
1주차	동양사5 한국사5(~p.18)	서양사5 한국사5(p.18~)	신뿌샘5(~p.32)	신뿌샘5(p.33~)
2주차	동양사6 한국사6(~p.14)	서양사6 한국사6(p.14~)	신뿌샘6(~p.19)	신뿌샘6(p.20~)
3주차	동양사7 한국사7(~p.10)	서양사7 한국사7(p.10~)	신뿌샘7(~p.17)	신뿌샘7(p.18~)
4주차	동양사8	서양사8	한국사8	신뿌샘8
5주차	동양사1 한국사1(~p.14)	서양사1 한국사1(p.14~)	신뿌샘1(~p.31)	신뿌샘1(p.32~)
6주차	동양사2 한국사2(~p.9)	서양사2 한국사2(p.10~)	신뿌샘2(~p.27)	신뿌샘2(p.28~)
7주차	동양사3 한국사3(~p.24)	서양사3 한국사3(p.24~)	신뿌샘3(~p.27)	신뿌샘3(p.28~)
8주차	동양사4 한국사4(~p.11)	서양사4 한국사4(p.11~)	신뿌샘4(~p.28)	신뿌샘4(p.29~)

총 8주 단위로 수~토까지는 본 진도, 일~화까지는 복습 진도를 나갔습니다. 본 진도는 한국사의 경우 한통 그린노트, 동양사는 동개 그린노트, 서양사는 서개 그린노트로 진행했습니다. 복습 진도는 일요일에 4주전에 했던 본진도를 나갔고, 교육학을 하는 월요일과 화요일은 신뿌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하면 1주차 본 진도에서 고대사 부분을 하고, 복습 진도에서 근대사를 할 수 있어 학습 주기를 4주로 맞추어 망각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총 8주간 한통, 동개, 서개는 2회독을 하게 되고, 신뿌샘은 1회독을 하게됩니다. 처음 3~4월에는 종권쌤이 주신 그린노트 그대로 진행하고, 5월부터는 빈칸을 뚫어서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빈칸의 글씨를 흰색으로 바꾸고 pdf로 보았고, 5초 내에 빈칸 답이 떠오르지 않으면 빈칸의 내용을 복사 - 검색창에 붙여넣기를 해서 확인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상 5회독 정도면 빈칸을 거의 다 넣게 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 8월까지 반복했습니다. 스터디를 활용하기도 했고, 혼자 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빠지지 않고 강제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그린노트를 활용한 개론서 회독이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역교론의 경우 따로 개론서 요약본을 제작하여 학원 수업 전 아침시간에만 보았고, 역교론 수업날 개인공부시간을 제외하고는 추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밑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쌤이 그린노트를 정말 잘 만들어주시는데, 아래는 제가 25년 2월에 최탈 직후 그린노트를 활용한 공부 계획을 짜느라 분석했던 내용입니다. 그린노트의 위력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사]

문제 번호	24년판 그린노트 (지문의 키워드 및 답이 직접적으로 나와있는 경우에 한정)	빈칸 또는 밑줄 여부
[A형 2번] ㉠ : 골품제 ㉡ : 자장	㉠ 그린노트(한통) 1주차 19쪽 그린노트(신뿌) 2주차 1쪽 ㉡ 그린노트(한통) 1주차 20쪽 그린노트(신뿌) 2주차 13쪽	X O X O
[A형 3번] ㉠ : 만적 ㉡ : 신분해방	㉠ 그린노트(한통) 3주차 30쪽 그린노트(신뿌) 3주차 35쪽 ㉡ 그린노트(한통) 3주차 30쪽	O O X
[A형 6번] ㉠ : 이인임 ㉡ : 종계변무 ㉢ : 철령위 설치 통고 ㉣ : 폐가입진(신돈의 자손)	㉠ 그린노트(한통) 3주차 36쪽 그린노트(신뿌) 3주차 18쪽 ㉡ : 없음(사사 한국사에 있음) ㉢ 그린노트(한통) 3주차 36쪽 그린노트(신뿌) 3주차 18쪽 ㉣ 그린노트(한통) 3주차 37쪽 그린노트(신뿌) 4주차 2쪽	O X O X X X
[A형 8번] ㉠ : 영토, 인민, 주권 ㉡ : 박은식 ㉢ : 공화주의 ㉣ : 여러 곳의 단체들이 모두 모여 유일무이한 최고 기관을 만든다	㉠ : 없음(대부분 교과서에 있음) ㉡ 그린노트(한통) 7주차 15쪽 그린노트(신뿌) 7주차 16쪽 ㉢ 그린노트(신뿌) 7주차 22쪽 ㉣ : 없음(금성 교과서에 있음)	O O X
[B형 3번] ㉠ : 비너나 가락지 등 패물을 팔아 모금 ㉡ : 양기탁 ㉢ : 이상재 ㉣ : 대중교육기관 설립 우선시	㉠ 그린노트(한통) 6주차 26쪽 그린노트(신뿌) 6주차 29쪽 ㉡ 그린노트(한통) 6주차 27쪽 그린노트(신뿌) 6주차 29쪽 ㉢ 그린노트(한통) 7주차 10쪽 그린노트(신뿌) 7주차 3쪽 ㉣ : 없음(지학사 교과서에 있음)	X X O O O X
[B형 6번] ㉠ : 3·15 부정선거 ㉡ : 처벌의 대상은 부정을 강요한 고위 책임자와 국민에게 학살 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국한	㉠ 그린노트(한통) 8주차 9쪽 ㉡ : 없음(신뿌쌤에 있음) ㉢ : 없음(신뿌쌤에 있음)	X

㉞ : 허정과도내각	㉞ : 없음(신뿌샘에 있음)	
㉞ : 혁명적 정치 개혁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단행		

- * 정리 : 그린노트(한통)만 - 12점, 그린노트(신뿌)만 - 11점, 그린노트(한통+신뿌) - 13점 가능
- * 참고 : 타 학원 해설강의 기준 24년 1차 합격에 필요했던 타 학원 한국사 점수 평균 - 12.4점
- * 보충 : 근현대사의 경우 15개정 교과서 9종을 모두 공부하면 허정 문제를 제외하고 다 맞을 수 있었다.

[서양사]

문제 번호	24년판 그린노트 (지문의 키워드 및 답이 직접적으로 나와있는 경우에 한정)	빈칸 또는 밑줄 여부
[A형 4번] ㉞ : 교황 ㉞ : 베르길리우스	㉞ : 그린노트(서개) 4주차 19쪽 ㉞ : 그린노트(서개) 4주차 19쪽	X X
[A형 11번] ㉞ : 알자스로렌 사건 : 보불전쟁 ㉞ : 국제연맹 반대 이유 : 먼로 선언의 정신을 벗어나기 때문	㉞ : 그린노트(서개) 8주차 1쪽 사건 : 그린노트(서개) 7주차 19쪽 ㉞ : 그린노트(서개) 8주차 1쪽 이유 : 없음(사읽서에 있음)	O O O
[A형 12번] ㉞ : 병사회 ㉞ : 감찰관 ㉞ : 귀족과 평민간의 통혼 금지 ㉞ : 카놀레이아법	㉞ : 그린노트(서개) 2주차 5쪽 ㉞ : 그린노트(서개) 2주차 2쪽 ㉞ : 그린노트(서개) 2주차 4쪽 ㉞ : 그린노트(서개) 2주차 4쪽	O O O O
[B형 2번] ㉞ : 청년이탈리아당 ㉞ : 가리발디	㉞ : 그린노트(서개) 7주차 5쪽 ㉞ : 그린노트(서개) 7주차 13쪽	O O
[B형 10번] ㉞ : 미국의 금 보유량 감소 ㉞ : 제4차 중동전쟁 ㉞ : 이란혁명 재정운영방침 : 공공 서비스 축소, 산업구조 조정	㉞ : 없음(서개에는 간접적으로, 사읽서에 직접적으로 나옴) ㉞ : 없음(서개에 있음) ㉞ : 없음(서개에 있음) 방침 : 없음(대다수 교과서에 있음)	
[B형 12번] ㉞ : 성년이 되었을때 재세례 받아야함 ㉞ : 재세례파 ㉞ : 가톨릭 ㉞ : 성바르톨로메오 축일의 대학살	㉞ 그린노트(서개) 5주차 16쪽 ㉞ 그린노트(서개) 5주차 16쪽 ㉞ 그린노트(서개) 5주차 25쪽 ㉞ 그린노트(서개) 5주차 25쪽	X O X O

- * 정리 : 그린노트(서개) - 15점 가능
- * 참고 : 타 학원 해설강의 기준 24년 1차 합격에 필요했던 타 학원 수강생 서양사 점수 평균 - 11.6점
- * 보충 : 현대사의 경우 교과서에 강조하는 부분(굵은 글씨)을 서개와 함께 공부하면 모두 맞을 수 있었다.
- ex) 재정운영방침 : 공공 서비스 축소, 산업구조 조정 → 교과서에 '레이거노믹스'가 굵은 글씨로 나옴(임용 문제 지문)

[동양사]

문제 번호	24년판 그린노트 (지문의 키워드 및 답이 직접적으로 나와있는 경우에 한정)	빈칸 또는 밑줄 여부
-------	---	-------------

[A형 9번] ㉠ : 고환 ㉡ : 후경 ㉢ : 복제 ㉣ : 문벌귀족체제 붕괴	㉠ : 그린노트(동개) 3주차 8쪽 ㉡ : 그린노트(동개) 3주차 8쪽 ㉢ : 그린노트(동개) 3주차 9쪽 ㉣ : 그린노트(동개) 3주차 6쪽	O O O O
[A형 10번] ㉠ : 장거정 작업 : 전국의 토지 측량 ㉢ : 은 차이 : 일조편법은 정세와 지세를 은으로 납부, 지정 은제는 정세를 지세에 포함하여 은으로 납부	㉠ : 그린노트(동개) 6주차 26쪽 작업 : 그린노트(동개) 6주차 26쪽 ㉢ : 그린노트(동개) 6주차 32쪽 차이 : 그린노트(동개) 6주차 32쪽	O O O O
[B형 7번] ㉠ : 요(거란) ㉡ : 서하 관계1 : 형제관계 관계2 : 군신관계	㉠ : 그린노트(동개) 5주차 16쪽 ㉡ : 그린노트(동개) 5주차 16쪽 관계1 : 그린노트(동개) 5주차 16쪽 관계2 : 그린노트(동개) 5주차 16쪽	X X X X
[B형 8번] ㉠ : 매킨토시 ㉡ : 무역항을 광동 한 곳으로 제한, 공행 통해 교역 ㉢ : 동인도회사 ㉣ : 아편으로 인한 무역 적자(은 유출)	㉠ 그린노트(동개) 7주차 15쪽 ㉡ 그린노트(동개) 7주차 15쪽 ㉢ 그린노트(동개) 7주차 15쪽 ㉣ 그린노트(동개) 7주차 15쪽	X O O X
[B형 9번] 원인 :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에 대해 공산당의 승리 ㉢ : 철강 저자 : 요문원 제목 : 해서파관	원인 : 그린노트(동개) 8주차 34쪽 ㉢ : 그린노트(동개) 8주차 38쪽 저자 : 그린노트(동개) 8주차 41쪽 제목 : 그린노트(동개) 8주차 41쪽	X O O O

※ 정리 : 그린노트(동개) - 20점 가능

※ 참고 : 타 학원 해설강의 기준 24년 1차 합격에 필요했던 타 학원 수강생 동양사 점수 평균 - 17.2점

※ 보충 : 이번 동양사의 경우 임용 역사상 가장 쉬운 수준이었음을 감안하여 한위중도 꼼꼼하게 공부해야 한다.

[역교론]

문제 번호	24년판 그린노트 (지문의 키워드 및 답이 직접적으로 나와있는 경우에 한정)	빈칸 또는 밑줄 여부
[A형 1번] ㉠ : 위계 질서 ㉡ : 상상적 이해	㉠ : 없음(역사란 무엇인가 원문) ㉡ : 그린노트 5주차(남색책) 12쪽	X
[A형 5번] ㉠ : 국민학교령 ㉡ : 시련과 극복 영향 : 민족주의 교육 강화 ㉣ : 국사교과서편찬준거안	㉠ : 없음(파란책에 있음) ㉡ : 그린노트 5주차(파란책) 37쪽 영향 : 없음(파란책에 있음) ㉣ : 없음(파란책에 있음)	O
[A형 7번] ㉠ : 내포적 정의 ㉡ : 주제학습 ㉢ : 총괄 ㉣ : 역사학습의 구조화	㉠ : 그린노트 6주차(남색책) 4쪽 ㉡ : 그린노트 3주차(녹색책) 15쪽 ㉢ : 그린노트 6주차(남색책) 4쪽 ㉣ : 그린노트 6주차(남색책) 5쪽	O X O O
[B형 1번]	㉠ : 없음(22 개정 교육과정 문서)	

㉠ 자기평가 ㉡ 동료평가	㉠ : 없음(22 개정 교육과정 문서)	
[B형 4번] ㉠ : 비교적 사고 ㉡ : 독일-프랑스 공동교과서 ㉢1 : 비교의 범주와 초점을 명확하게 ㉢2 : 다른 관점, 준거에 입각하면 달리 해석될 여지	㉠ : 그린노트 6주차(남색책) 23쪽 ㉡ : 없음(2004년 3번 기출 지문) ㉢1 : 그린노트 3주차(녹색책) 17쪽 ㉢2 : 그린노트 3주차(녹색책) 17쪽	O X X
[B형 5번] ㉠ : 탐구질문 ㉡ : 신뢰할 만한 자료 선정 ㉢1 : 학습자의 역사인식과 정서적 반응에 유의 ㉢2 : 허용적 분위기 조성하여 학습자의 부담감 경감	㉠ : 없음(22 개정 교육과정 문서) ㉡ : 없음(22 개정 교육과정 문서) ㉢1 : 없음(22 개정 교육과정 문서) ㉢2 : 없음(22 개정 교육과정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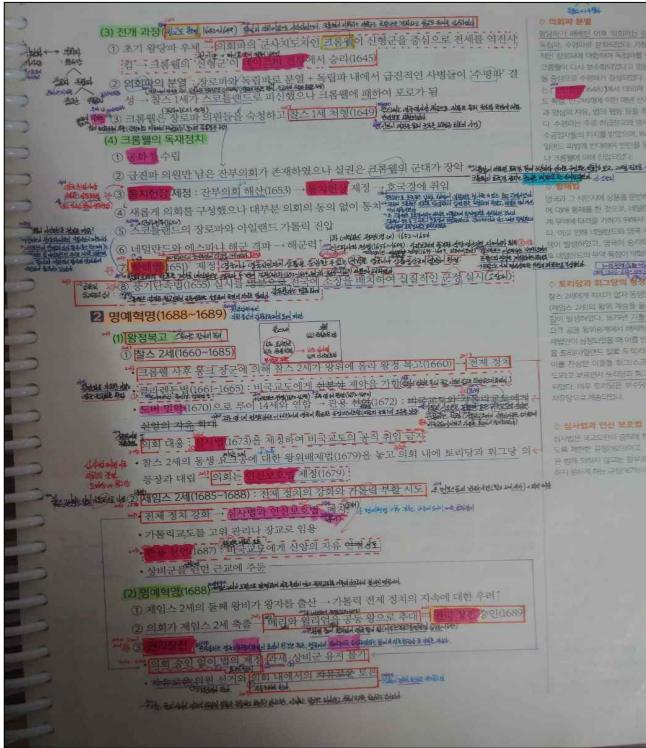
※ 정리 : 그린노트(녹, 남, 파, 갈, 첫걸음) - 9점 가능

※ 참고 : 타 학원 해설강의 기준 24년 1차 합격에 필요했던 타 학원 수강생 역교론 점수 평균 - 12점

※ 보충 : 파란책을 포함하여 교육과정 문제가 이례적으로 10점이나 나왔다.(보통 매년 2점) 특히 파란책은 잘 보지 않고, 교육과정도 지엽적인 부분이 나와 대부분 다 틀린 것으로 보인다.(B형 5번) 녹색과 남색책 문제를 거의 틀리지 않고, 기출(공동교과서 포함, 파란책의 국민학교령과 시련과 극복)과 쉬운 교육과정 문제(자기평가, 동료평가)를 맞아야 합격 가능한 점수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파란책, 갈색책, 첫걸음 등 어느 부분에서 추가로 나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녹+남+기출, 그리고 매년 나오는 교육과정 문제만 공부해도 합격 점수가 나온다.

6. 단권화

단권화의 목적은 시험 전날에 전 범위를 다 보고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업 내용과 개인공부를 통해 얻은 내용을 정리하여 한 권으로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개인공부시간에 정리하고 보았습니다. 제가 한 예시를 첨부합니다. 교재는 무엇이든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추가하고 본인이 수정하면서 뜯어고쳐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독성과 효율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단권화 규칙을 설정했습니다.(반짝이 젤리펜 사용)

- 노란 테두리 = 교과서 볼드체(굵은 글씨)
- 빨간 테두리 = 직접적인 기출 지문, 선지
- 빨간 테두리(점선) = 간접적인 기출 지문, 선지
- 초록 테두리 = 기출 서술형, 단답식 답

기출로 인한 테두리에는 왼쪽 상단에 출제된 연도를 적었고, 직접적인 답으로 요구된 경우 연도에 초록 밑줄을 그었습니다. 위의 사진은 서술형으로 출제된 적 없는 영국혁명 파트입니다. 전체적인 모양새를 보여드리기 위해 찍었습니다.(책이 너덜너덜해져서 스프링을 했는데, 필기가 조금 찢렸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초록 밑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독성을 위한 필기 및 형광펜 규칙입니다.(내용 위계화 목적)

- 형광펜류 = 위계를 위해 설정(단원 : 보라, 큰 제목 : 주황, 소 제목 : 초록)
- 검은색 필기 = 교과서 본문, 개론서
- 파란색 필기 = 지도서, 교사용 교과서
- 보라색 필기 = 개인적인 생각 필기, 수업 내용 필기
- 분홍색 암기펜(형광펜처럼 보여짐) = 전용 가리개로 가리고 암기용

7. 모의고사 성적과 1차 시험 복기

모의고사	7~8월	9~10월		파이널	
1주차	62/78	53/80	44(평균)	51/80	52(평균)
2주차	66/79	미응시(예비군)	41(평균)	66/80	58(평균)
3주차	62/79	63/80	51(평균)	67/80	58(평균)
4주차	62/80	48/80	47(평균)		
5주차	미응시(개인적 사정)	65/80	56(평균)		
6주차	57/77	50/80	47(평균)		
7주차	58/80	57/80	54(평균)		
8주차	62/77				

모의고사 성적은 참고용으로 적습니다. 모의고사 시즌이 오면 어느 정도의 성적이 나와야 합격 가능성이 있을 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평균에 근접하면 1차 합격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 이상의 점수는 컨디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모든 시험에서 전날 긴장으로 잠을 못자서 밤을 새고 시험을 쳤습니다. 그 결과 모의고사에서 낮은 성적을 받았을 때와 비슷하게 시험 성적을 받는 경향이 있었고,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일 것임을 예상하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비슷한 상황에서 받을 점수를 예상하기 위해 일부로 밤을 새고 시험을 친 적도 많습니다.

아래는 1차 시험 복기입니다.

A형	
1. [2점]	㉠은 기전체이다. ㉡은 편년체이다.
2. [2점]	㉠은 그레고리우스7세이다. ㉡은 서임권이다.
3. [2점]	㉠은 참정권이다. ㉡X
4. [2점]	㉠은 소도이다. ㉡은 화랑이다.
5. [4점]	㉠은 삼국간섭이다. (가)를 통해 독일이 중국으로부터 획득한 경제적 권리는 개항장에서의 제조업 종사권이다. ㉡이 체결된 회의는 워싱턴회의이다. ㉢에 관하여 결의한 조약의 내용은 산둥성을 중국에 반환한 것이다.
6. [4점]	㉠은 성향적 설명이다. ㉡에 해당하는 내용은 인간의 행위를 지나치게 도식화했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에 해당하는 내용은 역사적 인물 평가가 아닌 도덕적 측면으로만 인물을 평가하여 도덕교육으로 전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는 것이다. ㉣에 해당하는 내용은 같은 인물에 대해 상반된 해석 등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7. [4점]	㉠은 미·소공동위원회이다. ㉡은 조선 민주주의 임시정부이다. (가)를 작성한 집단이 ㉢을 위해 제시한 방안은 특별기구를 설립하여 즉시처리하는 것이다. ㉣의 토지 확보 방안은 체감매상, 유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8. [4점]	㉠은 장안이다. ㉡은 안록산·사사명의 난이다. ㉢의 원인은 몽골 등의 침입으로 복변 방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에 해당하는 내용은 난징에서 베이징으로의 천도이다.
9. [4점]	㉠에 들어갈 내용 조직 방식이 갖는 문제점은 첫째, ㉡의 측면에서 학생의 흥미나 관심을 고려하기 어렵다. 둘째, ㉢의 측면에서 주제 이외의 역사적 사실을 도외시하기 쉽다. ㉣은 통합성이다. ㉤에 해당하는 내용은 학생이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10. [4점]	㉠은 제승방략이다. ㉡이 가진 취약점은 한번 방어에 실패하면 그 이후 후방 지역에 대한 방어가 어렵다는 점이다.

	㉠은 속오군이다. ㉡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과세정책은 총액제를 시행하여 삼수포량미를 포함하였다.
11. [4점]	㉢의 내용은 오데르-나이세 선을 독일과 폴란드 간 국경으로 인정한 것이다. ㉣의 행위가 상징하는 것은 공식기억으로서 나치의 잘못을 사과한 것이다. ㉤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이다. ㉥은 인종주의이다.
12. [4점]	㉦은 성취수준이다. ㉦의 기능은 성취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A부터 E까지 등급을 매기기 쉽도록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은 원인과 결과이다. ㉨에 들어갈 내용은 '역사적 사실·사건을 시간 순으로 정리할 것'이다.

B형	
1. [2점]	㉢은 구분신참이다. ㉣은 사회진화론이다.
2. [2점]	㉤은 조만식이다. ㉥은 조선공산당이다.
3. [2점]	㉦과 ㉧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주장은 민족정신의 말살이다. ㉣은 민족정신이다. ㉨과 ㉩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식민사학의 설은 임나일본부설이다. (라)의 저자는 문일평이다.
4. [2점]	㉢은 '알렉산드리아'이다. ㉣에 해당하는 내용은 지동설을 주장하였다. ㉤은 에피쿠로스 학파이다. 이 학파가 로마법 발전에 끼친 영향은 세계시민주의를 토대로 로마법이 만민법으로 발전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5. [4점]	㉢은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이다. ㉣에 들어갈 유의점은 '비교의 범주와 초점을 명확히 하도록 유의한다.'이다. ㉤은 시기학습이다. ㉥에 들어갈 내용은 '상공업자들은 칼뱅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찬성했으므로 역사적 타당성이 부족합니다.'이다.
6. [4점]	㉢은 노예무역이다. ㉣은 백인의 짐이다. 제국주의 팽창의 이유는 독점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상품생산을 위한 원료공급지를 획득하기 위한 식민지 개척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 ㉤ 상황이 나타난 이유는 ㉣에서 열강이 아프리카 분할을 결정하였는데 종족, 종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식민지를 분할하였기 때문이다.
7. [4점]	㉢은 합작사이다. ㉣ 시기에 전국적으로 진행된 운동은 대약진 운동이다. ㉤을 통해 인민공사 사원에게 허가된 내용은 경지의 5%이내의 자류지, 손익의 자기부담이다.
8. [4점]	㉢은 진대법이다. ㉣은 흑창이다. ㉤의 기능은 물가조절이다. ㉥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조선시대 환곡의 운영 규정 1가지는 일본모회록 규정이다.
9. [4점]	㉢과 같이 행동한 이유는 중국 실정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천주교를 포교하기 위해 중국의 문자와 사상을 학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의 사례는 송정역서이다. ㉤은 시현력이다. ㉥ 조치가 내려진 이유는 전례문제로서 천주와 상제를 동일시하는 예수회의 포교방법을 교황이 금지했기 때문이다.

<p>10. [4점]</p>	<p>㉠에 해당하는 문답식 수업의 질문 유형은 수렴적 질문이다. ㉡은 교육과정 상세화이다. ㉢에 반영된 와인버그가 제시한 사료 읽기 방법은 맥락화이다. ㉣에 대해 예비교사1은 교과서를 객관적 지식을 담은 것으로 바라보는 반면, 예비교사2는 구성주의 입장에서 교과서를 구성물로 바라본다.</p>
<p>11. [4점]</p>	<p>㉠은 해외상관이다. ㉡은 상파뉴이다.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 쇠퇴하는 원인은 갈레선의 발달로 상파뉴를 거치지 않고 이탈리아에서 직접 북유럽으로의 교역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에서 알 수 있는 한자동맹의 성격은 자위적 성격이다.</p>

8. 2차 시험과 수업실연 복기

2차 시험은 스터디를 많이 활용하십니다. 저의 경우에는 12월에 쉬고, 1월에 스터디를 진행하며 종권쌤 2차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12월에 쉰 이유는 전년도에 최탈 후 휴식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2월에 최종 결과가 나오고, 바로 공부를 시작했더니 9~10월에 번아웃이 심하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1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통째로 휴식을 취했습니다. 처음 준비하시거나 2차 경험이 없으시다면 바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수업실연과 면접연습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목적에서 스터디를 추천드립니다.

2차 수업실연은 종권쌤이 지도를 정말 잘 해주십니다. 저는 이번에 1월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정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조언, 그리고 날카롭게 조언을 해주십니다. 제 성적을 보시면 작년에 수업실연에서 매우 낮은 점수(경남 기준)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약 1점이 감점되었습니다.(이 감점도 조건을 놓치거나 오개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권쌤의 지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2차 수업실연 복기입니다. 당시에 적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주제]

6월 민주항쟁

[자료]

- <자료 1> 87년 헌법 발췌문
- <자료 2> (연표)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발족(1980) ~ (가)~ 개헌청원1천만인서명운동(1986)
- <자료 3> 6·10 대회 결기문
- <자료 4> (편지쓰기)학생이 게시한 활동결과물 - 회사원에게 편지, 명동성당에서 호헌철폐 독재타도 구호 외침, 경찰이 시위대에 최루탄 던짐, 대통령이 해야하고 여야정권교체 내용담김

[지도안 조건]

1. <자료 1>를 활용하여 동기유발을 하시오.(수험생 작성부분 1)
 - <자료 1>을 활용한 발문을 2가지 하시오.
 - 현재 시점과 연계된 발문을 포함하시오.
2. <자료 2>를 활용하여 강의식 수업을 진행하시오.(수험생 작성부분 2)
 - <자료 2>에서 연대기 흐름상 (가)에 들어갈 역사적 사건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6월 민주항쟁의 배경을 설명하시오.
3. <자료 3>를 활용하여 문답식 수업을 진행하시오.(수험생 작성부분 2)
 - <자료 3>에서 역사적 사건을 2가지 포함하여 6월 민주항쟁의 배경 및 원인을 설명하시오.
4. 학습목표 2를 달성할 수 있는 모둠활동을 진행하시오.(수험생 작성부분 3)
 - 모둠활동 과정을 포함하시오.
 - 교사의 역할을 제시하시오.
5. <자료 4>를 활용하시오.(수험생 작성부분 4)
 - 역사적 오류 2가지를 찾게 하고, 학생 스스로 교정할 수 있도록 피드백하시오.
 - 시대적 맥락을 포함시키는 발문을 1가지 포함하시오.

교사와 학생의 대화형식을 포함하라는 조건이 어딘가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 조건이 더 있었는데 당연한 내용으로 생각해서 신경을 안썼더니 기억이 안나서 적지 못했습니다.

[지도안 내용]

<학습목표>

1. 6월 민주항쟁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2. 6월 민주항쟁에 참여한 다양한 계층의 노력을 이해하고, 성과를 분석할 수 있다.
3. 6월 민주항쟁의 결과와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수업>

[동기유발]

· (음영)<자료 1>을 활용하여 발문한다.

< 수험생 작성부분 1 >

[(음영)학습목표 제시]

[전개 : 강의식 수업]

·(음영)6월 민주항쟁의 배경과 원인을 설명한다.

< 수험생 작성부분 2 >

·(음영)6월 민주항쟁의 추가 배경을 설명한다.

·(음영)6월 민주항쟁의 전개과정, 결과, 의의를 설명한다.

[전개 : 모둠활동]

< 수험생 작성부분 3 >

[전개 : 편지쓰기]

·(음영) 6월 민주항쟁 참가자 중 인상 깊은 참여자에게 편지를 쓴다.

·(음영) 온라인 학급게시판에 게시하고, 동료들은 댓글을 달고 평점을 매긴다.

< 수험생 작성부분 4 >

·(음영) 다른 학생에게도 피드백을 진행한다.

·(음영) 수행평가 어찌구(?)

[정리]

(음영)

[실연 조건]

< 수험생 작성부분 1, 2, 4 >를 실연하시오.

[수업 복기]

6월 민주항쟁(1987)

[자료1] ① 민주적 권리

② 현재 시점 당면 → 왜?

[자료3] - 박종철 사건 은폐

- 4.13 호헌조치 x

3. 편지 쓰기

1. 6월 민주항쟁의 배경·원인

[자료2] (가)

1980 1986

① 1980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 초헌법적 기구

② (가) : 헌법 개정(7년 단임, 간선제)

→ 전두환 대통령

- 유화책 : 두발·교복 자율화, 야간통행금지 해제 → 「반민주성 은폐

- 강압책 : 삼청교육대, 언론 탄압

→ 군부 독재 지속」

③ 1986 : 개헌청원1천만인서명운동 - 「직선제」 ←----- 민주화 요구

판서 이렇게 했어요(자료3 위치가 너무 올라간듯하고, 2. 모듬활동을 안적은것도 아쉽네요)

반민주성 은폐, 군부 독재 지속, 직선제는 빨간색으로 판서했습니다.

- 오늘 배울 단원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함
- 6월 민주항쟁 판서
- 지난 시간에 배운 5.18민주화운동 상기시킴 + '민주'가 공통으로 들어가고 5월, 6월이므로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라고 알려줌
- 연도 쓰고(1987), 6월 = 6789로 외우면 안헛갈린다고 팁 줌, 제목 인지시키고 본격적으로 들어감

[동기유발]

- 당시 시민들이 바라던 사회가 무엇인지 자료를 통해 확인해보자고 하며 자료1 들어감
 - 자료1은 87년 헌법으로, 오늘 배울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 + 오늘날의 헌법임을 알려줌
 - 발문 2가지 함
 - 1)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 내용 언급하며 판서 : 민주적 권리
 - 2) 현재 시점에는 당연한 것들인데 왜 이러한 요구가 담기게 되었을까요?(말하며 판서함)
 - 당시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런 요구들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 여기까지 4분썰습니다.

(학습목표 지금부터 읽어보자 하고 생략)

[전개]

1. 6월 민주항쟁 배경·원인 판서 후 들어감
 - [자료 2]를 보게 함, 판서 함
 - 연표에 나와있는 1980년 발족한 기구가 뭔지 읽어보게 함
 - 판서하며 설명 : 군사최고회의, 초헌법적기구,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다 장악했음
 - (가)시기 판서하며 설명함
 - 1) 8번째 헌법 개헌, 1980년에 이루어짐, 7년 단임제와 간선제
 - 2)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됨(직전에 유신헌법에 의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고 헌법 개정 후 다시 선출된 것임을 언급)
 - 3) 유화책과 강압책 판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함
 - 4) 겉으로는 유화책, 실상은 강압책을 펼침 → 반민주성 은폐, 군부 독재 지속 도출함
 - 5) 이러한 배경에서 민주화 요구가 나옴 + 은폐했던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함
 - 6) 그 결과 개헌청원1천만인서명운동이 진행됨 : 이러한 상황을 바꾸려면 군부 독재를 바꾸는 것이 필요, 그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 문답
 - 7) 간선제가 지속되면 신군부의 2인자가 다음 대통령이 되어 군부 독재가 지속됨 → 직선제를 포인트로 도출하고 판서함
 - 이렇게 개헌청원1천만인서명운동이 진행되는 와중 여러가지 사건이 생김
2. 그 결과 시민들이 분노하여 폭발한 것이 6.10대회임을 소개, [자료3]을 살펴보고 핵심 내용을 찾는 시간을 줌
 - 1) [자료3]의 내용 중 인권 유린을 학생이 핵심 내용으로 발표, 그 사례를 질문하고 교과서에서 찾아 발표 → 학생이 삼청교육대 대답, 배운내용 잘 활용했다고 칭찬 후 1987년에 일어났음을 설명하며 가까운 시기로 다시 찾아보게 함
 -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학생이 다시 찾음, 이것을 은폐한 것이 폭로되었음을 설명하고 판서
 - 2) [자료3]의 내용 중 호헌 무효화를 학생이 핵심 내용으로 발표
 - 호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앞서 판서한 헌법을 보호하겠다는 의미, 직선제 하지 않겠다는 의미임을 설명함
 - 그 내용을 담은 성명이 4.13호헌조치임을 설명하고 판서
 - 3) 이러한 내용들을 배경으로 [자료3]이 나오게 되었고 6월 민주항쟁의 배경임을 언급함
 - + 앞서 판서한 내용으로 가서 반민주성 은폐, 군부 독재 지속이 원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함
 - 이러한 내용들이 6월 민주항쟁이 배경과 원인임을 상기시킴

(추가 배경, 전개과정, 결과 지금부터 더 설명하겠다하고 생략함)

(모둠활동 지금부터 하겠다 하고 모둠만 4명씩 6모둠 만들어주고 생략함)

(모둠활동 다 마쳤으니 블록타임제에 의한 쉬는시간을 갖겠다고 공지하고 휴식)

3. 편지 쓰기 판서함(여기서부터 2분 30초 남음)

(휴식 후 모둠활동으로 알아보았던 참여자 중 가장 인상 깊은 참여자 하나를 선정해서 편지쓰기를 할 것임을 안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고 댓글 달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뒤 생략)

- 왼쪽 화면에 띄웠다고 가정하고, 올린 편지 중 하나를 재가공해서 [자료 4]로 화면에 표시했음을 알림
- [자료4]보자고 하고 작성자인 박00를 앞으로 나오게 해서 발표시킴, 다른 사람들은 집중하여 경청하도록 안내함

- 실감나게 당시 상황을 반영해서 작성 잘 해주었다고 칭찬, 다만 옥의 티가 있다고 말하며 역사이다보니 오류가 혹시 있는지 확인해보고 수정하도록 시킴

- 학생은 동료들의 댓글을 보고 오류를 찾아 수정했다고 발표, 어떻게 수정했는지 교사가 다시 한번 정리해 줌

1) 회사원이 명동성당에서 구호 외침 → 서울광장에서 외치고,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명동성당으로 피신했음으로 수정

2) 대통령 하야 →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웠다고 수정, 직선제 개헌 후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음을 설명함

- 발표한 학생에게 수정한 내용을 댓글에 다시 올려주면, 포트폴리오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안내함

- 교사는 학생들에게 당시 시대상을 생각하며 편지에 반영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보자고 함

- (잠시 후) 방금 활동을 바탕으로 6월 민주항쟁의 결과와 의의를 말해보자고 함 : 평화적, 민주적, 시민의 승리, 결과적으로 판서된 직선제가 이루어졌음 등을 언급 후 이상입니다.

시험 직후 스스로의 수업 후 감점요소가 되지 않을까 당시 반성했던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서(전개1이랑 줄 맞췄어야했는데 자료3이 옆으로 가다보니 줄이 안맞고, 2번 모둠활동 생략한 부분 판서 안함, 3번 편지쓰기 제목도 줄 안맞음)

2) 문답식 수업도 문답 중심으로 돌아갔다가보다는 강의식에 문답식이 부가된 느낌

3) 마지막 전개파트에서 학생 오류 2가지 찾아야하는데 대통령하야 하나만 찾고 다른 하나 발견 못해서 명동성당으로....

4) 학생 수준에 맞게 유추의 기법을 사용하지는 못한 느낌입니다.

5) 지우개를 못찾아서 판서 오타낸 것은 손으로 지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연표 연도 잘못된걸 발견해서 (1986인데 1987로 적음) 별도의 말 없이 얼른 손으로 지웠습니다. 말을 하고 지웠어야 자연스럽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6) 간선제 판서하려다가 갑자기 생각안나서 5초간 칠판보고 정적 + 지도안에 교사, 학생 대화 못써서 안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결과는 약 1점 감점되었습니다. 흔히 알려진 통념으로는 학생 활동이 주가 되어야하고, 강의는 최대한 줄여야한다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시다시피 활동은 2분 30초였고 강의식이 주였습니다. 학생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도 꼭 필요한 상황(자료 활용 때)에서 총 2명 정도 하고 그 이외에는 학생을 호명하며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생에게 상호작용한다고 자주 질문을 던지면 강의 흐름이 깨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6월 민주항쟁은 1차를 준비할 때에도 공부하지 않았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몰라서 큰일났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2차를 응시했던 부산은 자기 차례 전까지 서적을 볼 수 있어서 준비해갔던 교과서로 급하게 임기응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지식에서 부족함이 많았을텐데 점수를 보면 내용지식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지도안 점수가 낮았는데, 지도안 그대로 실연해서 나온 점수입니다. 어떤 부분을 보고 점수를 잘 주신 것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경남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부산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신 것 보니 여기서는 저를 좋게 봐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지역별로 성향이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특이한 2차 수업실연 사례라고 생각해서 적어봅니다.

9. 마치며

종권쌤 수업은 어떻게 보면 종권쌤의 인생 경험의 정수를 담은 수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업 중 온갖 팁이나 학교, 생활 관련 얘기도 해주시는데 저는 거기서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직강생은 1~2주에 한번씩 상담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데, 이러한 맞춤형 상담과 종권쌤의 수업 열정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스승을 닮는다고도 하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종권쌤과 함께 임용 준비를 하면서 합격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